

구역 예배 교안 2024.11.17

1. 신앙고백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2. 찬양과 경배	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3. 기도	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
4. 말씀	본문: 로마서 10장 11-15절 제목: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5. 질문과 나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결단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6. 증거	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 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 3) 구역 결적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
7. 치유와 회복의 시간	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치유집중기도 -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3) 문제를 맡기며 기도 - 서로 나눈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
8. 공지사항	
9. 주기도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 롬10:11-15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증거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전도 책자나 인쇄물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볼 수 있지만, 당시는 방송도 없었고 인쇄술이 발달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방송을 찾아서 듣고, 또 복음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민은 해외에 있는 불신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만민입니다. 이들은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또 우리 지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가족 전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가까운 지인이라도 교회 가자 그러면 돌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슨 큰 상처가 있는지 "그런 말 하려면 앞으로 만나지 말자"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되어서 다시 교회 가자 소그룹 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또 전도를 위해 이웃과 관계 접촉점을 가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좀 더 친밀해질 기회가 열리고 또 교회로 초청하거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담감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모든 주의 백성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한 권사님은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와 함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권사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헌신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로 그 구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역 모임 교안 2024.11.17

1. 아이스 브레이크	<p>*눈치게임: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예:5명이 모였으면 4번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거나 번호를 외치며 손뼉을 치는 게임입니다.</p> <p>*별칭 해당자: 마지막까지 번호를 외치지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동시에 같이 외치거나 함께 일어나는 사람</p>
2. 찬양과 경배	<p>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p>
3. 기도 (통성으로)	<p>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p>
4. 은혜의 나눔	<p>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내용이나 응답받은 기도제목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 앞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p>
5. 말씀의 나눔	<p>본문: 로마서 10장 11-15절 제목: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p>
6. 질문과 나눔	<p>1)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p> <p>2)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p> <p>3)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결단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p>
7. 증거	<p>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p> <p>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p> <p>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p>
8. 치유와 회복의 시간	<p>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p> <p>2) 치유집중기도: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p> <p>3) 문제를 맡기며 : 서로 나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p> <p>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p> <p>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p> <p>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p> <p>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p>
9. 광고 및 주기도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 롬10:11-15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증거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전도 책자나 인쇄물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볼 수 있지만, 당시는 방송도 없었고 인쇄술이 발달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방송을 찾아서 듣고, 또 복음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민은 해외에 있는 불신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만민입니다. 이들은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또 우리 지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가족 전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가까운 지인이라도 교회 가자 그러면 돌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슨 큰 상처가 있는지 “그런 말 하려면 앞으로 만나지 말자”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되어서 다시 교회 가자 소그룹 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또 전도를 위해 이웃과 관계 접촉점을 가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좀 더 친밀해질 기회가 열리고 또 교회로 초청하거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담감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모든 주의 백성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한 권사님은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와 함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권사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헌신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로 그 구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통일 533)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

미래와 소망 Be Thou my vision
 Irish Hymn, c. 8th Century 주 의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주말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시 73:25)
 SLANE: 10.10.10.10. Traditional Irish Melody Harm. by C. Young, 1963

보통으로

1. 내 맘의 주의 소망 되소서 서서도 주
 2. 내 맘의 주의 소망 되소서 서서도 주
 3. 내 맘의 주의 소망 되소서 서서도 주
 4. 내 맘의 주의 소망 되소서 서서도 주

주여 나의 소망이 되소서
 나의 소망이 되소서
 나의 소망이 되소서
 나의 소망이 되소서

밤중에 내게 나타나서
 나의 소망이 되소서
 나의 소망이 되소서
 나의 소망이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쉬운 기타코드(capo=3rd) E^b→C A^b→F B^b→G Cm→Am Gm7→Em7

♫경배와 찬양♫

그 사랑

박희정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해 그사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사

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사

1. 랑 2. 랑 사랑 - 그 사랑 - 날 위해

죽으신 - 날 - 위해 다시사신 - 예수 그리스도 -

다시오실 그 사랑 - 죽음도 - 생명도 천사도 - 하늘의 어떤

권세도 - 꿈을 수 없는 - 영원한 - 그 사랑 - 예수